

원로에게 듣는다



김순재
제23대 대한수의사회 고문

어느 단체나 조직체에는 대변할 수 있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협회가 있다. 수의분야에는 대한수의사회와 학술단체인 수의학회, 두 개의 큰 단체가 있다. 수의학회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계통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학술토론을 하며 학술에 관한 정보교환, 국제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도 한다. 이에 비하여 모든 수의사가 모여 있는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의 권익보호와 수의법규, 제도, 수의정책, 교육 등 수의사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총괄하며 수의사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상수의사, 기업체에서 일하는 수의사, 학계, 연구기관, 수의직 공무원 등 수의사면허증을 보유한 모든 수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즉 모든 수의사들의 권익보호단체이며 수의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면을 통하여 나의 소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구제역이 국내에 발생하였을 때

2000년도 3월, 66년 만에 처음 구제역이 국내에 발생하였을 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담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종식됐다. 구제역은 일단 발생하면 종식될 때까지의 처리과정을 모두 OIE에 보고하여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제역이 종식되었다고 해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 발생시 감염축처리, 진단, 바이러스 분리동정, 발생농장 주변 모니터링, 감시체계, 혈청검사, 임상검사,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였으면 모든 우제류 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OIE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종식되었다는 OIE인증을 받아서 종식을 선언한다. 다행히 2000년도 발생 당시에 신속하게 종식시켰던 것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해외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구축한 준비된 연구결과의 덕분이었다. 당시에 OIE로부터 어떻게 신속하게 종식시켰느냐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때에 수의사회에서는 전국 수의과대학생동원, 임상수의사동원협조 등 방역에 대한 주의 홍보로 수의사회의 역할이 매우 컸었다. 수의사회, 전국 수의사인 행정 및 연구공무원, 임상수의사, 관련 공무원 등 수의사가 단합한 결과라고 자부한다.

2.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한 논란

구제역이 발생하고 광우병 문제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지면을 할애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를 앞장세워서 논의가 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이다. 비전문가가 제목소리를 각각 내다보니까 수의분야외의 타분야 과학자나 일반인들이 혼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착각 내지 오해를 함으로서 진짜 전문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 때에 필자가 느낀 것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차서 만감이 연일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같은 수의사들도 그에 대한 비전문가가 제목소리를 제멋대로 내는 데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때에는 학술적인 문제는 수의학회에서 전문가를 모아놓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수의정책, 방역시스템, 홍보 등은 수의사회에서 정도로 갈 수 있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비전문가나 일반인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베트남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 전에 강화도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구제역바이러스가 여름철에 면역력

이 약화된 소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겨울철에 다시 나타났을 것이라고 어느 수의학자가 공개석상에서 역설하였을 당시에 수의학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 수의사회는 그동안 조사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 정도로 가도록 인도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3. 옛 가축위생연구소를 부활하여야 한다

1911년 안양에 가축위생연구소 지소를 설립하였다. 당시에 이북에서 우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전과 직전에 가축 위생연구소 지소를 설립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으로 또는 가축 전염병 방역진지로 구축하여 전염병 방역을 수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가축위생연구소가 설립됨으로서 가축전염병방역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오늘의 축산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백신은 소의 결핵, 탄저, 기종저, 돼지의 돈열, 돈단독, 위축성 비염 등 근래에 유행하는 각종 전염병 백신, 닭의 뉴캐슬병, 계두, 추백리, 전염성 후두기관염, 전염성 기관지염 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전문과학자를 국내 외에서 양성하여 현재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 하고 있다.

가축위생연구소의 기관명칭이 소멸된 과정을 살펴보면, 가축위생연구소 → 수의과학연구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립수산검역검사본부로 개편 되었다.

새로운 명칭을 살펴보자.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어느 구석에도 수의 및 연구라는 글자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것도 동물, 식물, 수산까지 합해서 검역검사만 하면 국내외의 동

물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본심을 의심케 한다.

구제역 발생으로 엄청난 가축 피해와 막대한 경제손실을 가져 왔는데도 수의연구기관을 동식물위생연구부로 묶어 질식사하게 만들어 놨다.

연구는 독립된 전문연구기관 명칭하에 연구활동 하는 것과 한 부서의 연구부 밑에서 연구하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국내 외적으로 학술교류 및 연구활동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고 싶다.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두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유사 이래 처음이다. 더구나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소, 돼지, 닭 등 수백만 두수가 살처분 매몰되었으며 국내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그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은 수조원에 달해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수의과학연구 및 이 분야에 관련되는 연구시설, 전문인력, 연구장비, 실험동물 차폐시설 등 제대로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있는 연구소도 동식물로 묶어 놓고 글로벌시대에 날로 잠입되어 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 및 방지 하라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말 밖에 안된다.

이러한 역경에 처해있는 수의연구기관인 가축위생연구소를 부활시키는데 앞장 서야할 곳이 바로 대한수의사회와 수의학회라고 판단되며 수의학도들의 연구 및 사회활동에 앞길을 터준다고 사료되어 이 지면을 할애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

